

### 독무 《도라지》에 대하여

김 명 옥

독무 《도라지》는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우리 인민의 굳은 절개를 형상한 작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적인 사상감정과 정서가 풍부한 예술작품은 인민의 사랑을 받는것으로 하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없어 지지 않고 계속 전해진다.》

독무 《도라지》는 크게 3개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의 첫부분에서는 밝은 해빛을 받아 꽃망을 터치며 활짝 피어나는 한 떨기의 아름다운 도라지꽃을 보여주고 있으며 둘째부분에서는 사나운 비바람과 싸우며 자연의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는 도라지꽃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굳센 의지와 절개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셋째부분에서는 시련을 이겨낸 도라지꽃이 더욱 아름답고 굳세게 피어나는 모습을 형상함으로써 그 어떤 난관도 굴함없이 꽃꽂이 이겨내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고상한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독무 《도라지》는 엄혹한 자연을 이겨내며 아름답게 피어나는 도라지꽃을 잘 깨인 춤 구성속에 개성적인 춤가락과 높은 기교를 잘 결합하였다.

독무 《도라지》에서는 우리 무용에서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고유한 춤동작들인 메고지기와 메고펴기, 한손뿌리치기와 두손뿌리치기동작들을 주동작으로 하고 그것을 끌어올리기, 굽이치기와 결합하여 작품의 양상에 맞게 잘 파생시킴으로써 활짝피어난 도라지꽃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동하게 잘 보여주고있다.

팔팔어올리기와 메기, 굽이치기, 뿌리치기와 같은 동작들은 고유하고 기초적인 동작들로서 룰동이 아주 섬세하고 부드러운 맛을 가진다.

작품의 둘째부분은 극성이 있는 춤동작들과 기교동작들로 폭풍장면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무용은 도라지꽃이 세찬 비바람을 이겨내는 대목에 형상을 집중시키고 여기에 허리를 트는 동작과 돌리는 동작, 손을 끌어당겼다 미는 동작 등 성격적인 동작들과 제자리돌기기와 두팔을 휘저으며 돌아가는 동작 등 기교적인 동작들을 도입함으로써 작품의 극성을 강하게 살리고 사상적내용이 집약적으로 표현된다.

작품에서는 비구름이 몰려오는것을 무용수의 룰동형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원과 사선을 그리며 잣은걸음으로 달리다가 빠른 속도로 제자리돌기를 진행하였다. 허리를 틀거나 돌리는 동작을 할 때 마지막에 속도를 가해줌으로써 비바람속에서 몸부림치는 도라지꽃을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무용수가 무대중심에서 빠르게 제자리돌기를 하다가 무대방향 8번을 지향하여 두팔을 앞위사선으로 쭉 펴는 조형적인 동작은 사나운 비바람을 이겨낸 도라지꽃의 아름답고 굳센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었다. 무용은 둘째부분에서 셋째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사선으로 달려나가며 두팔을 크게 벌려 앞으로 모았다가 량옆으로 미는 동작들로서 다시 해빛을 받아 활짝 피어난 도라지꽃의 기쁨에 설레이는 모습을 룰동적으로 잘 반영하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독무 《도라지》는 민족적사상감정과 정서가 풍부한것으로 하여 인민의 사랑을 받고있으며 무용가들속에서 널리 추어지고있다. (끝)

# 舞 朝鮮 무용 통신

発行：在日本朝鮮文学芸術家同盟中央舞蹈部 〒112-8603 東京都文京区白山4-33-14 TEL03-3817-0431

제12호 (루게 제12호)

주체97(2008)년 12월 1일 (월)



## 50년의 빛나는 발자취를 더욱 빛내여 나가자!

무용부동무들 안녕하십니까.

래년 2009년에 우리는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50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50돐!!

이러한 뜻깊은 해에 우리 선배, 선생님들이 반세기에 걸쳐 지키고 발전시켜온 우리 문예동무 용부사업의 인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운 일도 적고 모자란 점이 많지만 적은 힘이나마 무용부 발전에 기여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안고 사업하겠습니다.

50년의 력사- 여기에 우리 무용부는 빛나는 발자취를 수많이 남겨놓았으며 조선무용의 대중화와 기량제고, 그리고 이국땅 일본에서의 민족무용의 계승문제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최근시기에는 전문단체인 금강산가극단, 지방가무단뿐만아니라 평양음악무용학원 통신수강, 각지 무용연구소, 무용단설립 등 많은 사람들이 다방면적으로 무용을 즐길수 있게 된 한편 우리 동포들의 요구성도 날마다 높아가고있습니다.

재일동포사회에서 민족성을 고수하고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동포들을 되찾아 민족권을 확대해 나가야 할 사업요구로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 지부 무용부 부위원회를 지금이상으로 더 강화하면서 부장을 중심으로 지역활동을 원만히 벌릴수 있는 힘을 키워 맹원동무들의 요구에 보답할수 있게 부위원회를 잘 꾸리는것입니다.

적극적인 공연활동, 그를 질적으로 담보하는 기량제고,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창작수준제고 등 참으로 해야 할 일은 태산과 같이 많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분야에서 활약하는 조선무용가들도 문예동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야 할것입니다. 맹원대렬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조국에서 창조되고 발전된 조선무용을 일본에서 더욱 빛내일수 있도록 전체 맹원들이 하나와 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입니다.

문예동중앙무용부에서는 문예동의 후비무용가를 양성하는 의미에서도 제6차로 효고에서 열리게 되는 무용경연대회마당에 연구소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독무부문을 처음으로 내올 결심입니다.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속에서 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문예동중앙무용부 부위원회를 강화하고 여러 선배, 선생님들의 의견도 참고로 하면서 좋은 지혜를 모아 적은 힘이나마 무용발전에 기여해나가겠습니다.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무용부 부장 임수향

